

노인 단독가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 정 화(인하대 통합과정) · 윤 정 혜(인하대 교수)

이 연구의 목적은 만 65세 이상 노인 단독가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 것이다. 국민노후보장패널(KReIS) 4차년도(2011년) 조사에 응답한 만 65세 이상 노인 단독가계 중 주요변수 무응답한 경우를 제외한 812명의 응답자료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였으며 빈도 분석, 교차분석, 회귀분석을 행하였다. 독립변수는 인구학적 변수(성별, 나이, 교육수준), 경제적 자원 변수(자가소유여부, 가계소득), 건강상태 변수(신체적 건강상태, 심리적 건강상태)이고, 종속변수는 삶의 만족도이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을 기준으로 남성 단독가계가 14.3%, 여성 단독가계가 85.7%이고, 전체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75세이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80.4%)이 가장 많았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교육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단독가계 중 자가 소유가계가 61.6%, 자가 비소유가계가 38.4%이었으며 임차가계 중 35%가 월세에 거주하고 있어 주거비 부담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2010년도 노인 단독가계의 월평균소득은 약 62만원, 월중위소득은 약 45만원으로 월평균소득보다 월중위소득이 더 낮았으며, 월중위소득은 201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1인가계 최저생계비 504,344원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노인 단독가구주들은 신체적 건강상태를 좋지 않다고 생각하였으며 심리적 건강상태는 보통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삶의 만족도를 보통 수준으로 느끼고 있었다. 둘째, 노인 단독가계의 자가소유여부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임차가계의 경우 주거불안정 및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삶의 만족도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노인 단독가계의 가계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노인 가계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식료품비, 광열수도비, 보건의료비 등의 소비지출을 할 수 있는 주된 자원인 가계소득의 부족 또는 결핍은 노인 가계의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노인 단독가구주의 신체적 건강상태는 노인 단독가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노인 단독가구주의 심리적 건강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주거불안정, 외로움, 고독감 등 심리적인 요인이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여섯째, 노인 단독가구주의 성별, 나이, 교육수준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노인 단독가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적 요인(자가소유여부, 가계소득), 신체적 요인(신체적 건강상태), 심리적 요인(심리적 건강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인구학적 요인(성별, 나이, 교육수준)은 노인 단독가계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노인 단독가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체 노인 단독가계들에게 경제적 지원, 주거불안정 해소, 의료서비스 제공, 사회적 네트워크 확산 및 공동체 활동의 기회 제공 등의 복지정책을 실시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현재까지 노인 단독가계에 대한 종단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노인 단독가계의 삶의 만족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